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8>

관무량수경의 극락 가는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 탄년의 일입니다. 온갖 장애로부터 벗어나신 부처님도 인편에 걸쳐 슬픈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제바닷다가 교단의 권력을 장악 하기위해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사건과 밖으로는 역시 제바닷다의 교인에 빠진 밤비사라왕의 아들인 아자세 태자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한 사건입니다.

이때 왕비 위제희 부인은 아들 둘을 잃고 감옥에 있는 왕에게 음식물을 넣어 주었는데 그만 이 일이 아들 아자세 태자에게 발각 되어 남편처럼 왕궁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슬픔에 빠

게 열리고 크게 깨달아서 무생 법인을 얻게 되고 함께 했던 오백명의 시녀들도 보리심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서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에서 말하는 극락 정도에 나아가는 방법으로써의 세 가지 복과 열여섯 가지 관은 무엇인가.

먼저 세가지 복은 첫째, 세간에서 행하는 도덕적 행위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불살생 불부도 불망어 등의 십 선업을 닦는 일이고 둘째 삼보에 귀의하여 재물을 받아 지니고 위의를 갖추는 일이며 셋째 대승의 깨달음을 얻고자 보리심을 일으켜 인과의 이치를 믿고 대승정신을 독송하고 이를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열여섯 가지 관은 해를 떠올리는 일상관(日想觀), 물

세가지 복 짓고 16가지 관법 실천하라

을 떠올리는 수상관(水想觀), 땅을 떠올리는 지상관(地想觀), 보배 나무를 떠올리는 보수관(寶樹觀), 보배연못을 떠올리는 보지관(寶池觀), 보배 누각을 떠올리는 보루관(寶樓觀), 연꽃으로 장엄된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을 떠올리는 화좌관(華坐觀), 부처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상관(像觀), 부처님의 참모습을 떠올리는 진신관(眞身觀),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관음관(觀音觀)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觀)의 의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관찰하여 그성품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수행인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을 한번 독송 해 보고 조용히 앉아서 심유관법중에 하나의 주제를 마음에 떠올려 삼매에 들게 하는 공부도 훌륭한 수행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마선원장>



진 위제희 부인은 탄식하며 부처님 비유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을 향해 예배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은神通력으로 아난과 목련 두 제자를 데리고 부인의 처소에 나타나 양 미간으로 빛을 발하여 시방세계의 정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본 위제희 부인은 여러 정도 가운데에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저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먼저 세 가지 복을 닦고 열여섯 가지 관을 실천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空=하나' 확인 과정이 금강경 공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금강경으로 禪 공부하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 이와 같이, 이것처럼, 이대로, 이것. (손짓을 하며) 요거대로... 지금 눈에서 쓰고 있고, 귀에서 쓰고 있고, 입에서 쓰고 있고, 머리에서 쓰고 있는. 이와 같이 듣는다 이겁니다. 들었다가 아니라 듣는다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경전을 읽든, 동화책을 읽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착수(着手)하는 그 지점에서 결단을 내라'던 어느 선사 스님의 말처럼, 눈치가 빠르다면 '여시아문'이란 말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글은 지난 해 1-6월 매주 토요일 부산 무심선원(원장 김태완)에서 김태완(47) 원장이 강의한 '선(禪)으로 본 금강경 법회'의 강의 중 일부입니다. 최근 발간된 <禪으로 읽는 금강경> 교양적 해설 수준에서 탈피해 선수행과 마음공부의 지점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백양사의 호산 스님(서종 스님 제자)이 "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선의 세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금강경>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듯 정다.

<금강경>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에서 '환지본처(還至本處)'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자.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에서 '본래 있던 자리(本處)'란 사실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주법(無住法)'이라고 합니다. '도'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인연 위에서 마음이 살아있고, 도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순가락 위에 도가 있고, 빨래 할 때는 빨래판 위에 도가 있고, 글을 쓸 때는 손가락 끝에 도가 있고, 걸어 갈 때는 발끝에 있고, 눈을 돌려서 쳐다볼 때는 눈길 가는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김 원장의 강의는 일상 생활을 소재로 친근하게 <금강경>을 풀이한다. 그러면서 도 본래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

서 강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참 자아'를 만나게 된다. 단 한번도 '도란, 진리란 이런 것이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도가 무엇인지 법(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실감하게 된다.

"도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우리는 이토록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가? 대답은 (眞如本性)을 보았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란 경문을 듣고 문득 경성하여, 만법이 모두 자성(自性) 일원(一元)일 뿐 없어야 할 망상(妄想)이 따로 없음을 깨달은 혜능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설을 듣고 경성하여 체득한 '반야삼매(般若三昧)'란 무엇일까. 혜능 스님에 따르면, 반야삼매란 자재해탈(自在解脫) 또는 무념행(無念行)이라고도 하는데, 만법을 대하되 그 만법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청정한 성품을 유지하며 육근(六根)을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즉 반야삼매는 만법 속에서 만법에 걸리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유지하는 무념행이자 자재해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반야 즉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자성을 깨닫게 되면 곧 지혜가 나타난다고 한다.

김 원장은 "어떻게 해야 망상분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한결같이 반야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라고 말한다. <금강경>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향복시켜야 하는가를 밝히고 늘 한결같은(如如)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과 <간화선>의 요점은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라는 김 원장은 오직 '하나공, 본래면목, 마음, 주인공 등'을 확인하는 공부가 선 수행이라 하며 이렇게 말한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하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하나'만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도·진리·법은 모두 본래 '나'... '말에 속지 말것'

간단합니다. 도, 진리, 법 등은 모두 본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의 첫걸음은 '본래의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갈구하며 <금강경>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금강경>일까. <금강경>이 다름 아닌 선종의 소의경전이나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종의 실질적인 개조인 육조혜능 대사는 불교에 입문하기 이전에 우연히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마음이 밝아져 깨달았고, 그 인연으로 오조홍인 대사로부터 <금강경> 해설을 듣고 다시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



■김태완 원장 호산 박흥영(82) 거사의 문하에서 선을 공부한 김태완 원장은 부산 무심선원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선 공부를 지도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부산대학교원 철학과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저서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공부>가 있다. 역서로는 <임제록> <선문수경(禪門手鏡)>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혜능의 새로운 선> <견성의 심성론적 해명> <선과 언어> 등 10여 편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자료사진)



부산 무심선원의 '금강경 법회'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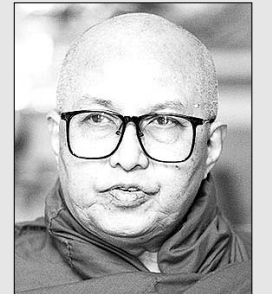
육조혜능 대사는 불교 입문 전 우연히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문득 마음 밝아져 깨달아

미안타 찬메 사야도 위빠사나 수행서 발간

"마음-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국에 '우자나까'라는 범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안타의 고승 찬메 사야도(76·사진, Chanmyay Sayadaw, 찬메수행센터 원장·사진가 수행지침서인 <위빠사나 수행 28일>[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펴냄]을 펴냈다. 1991년 12월 28-24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직접 지도한 수련회에서 강의한 28일간의 강화를 녹취, 그의 한국어 제자 캄마(Khema, 김도희) 보살이 번역해 출간한 이 책은 이제 막 위빠사나 수행에 입문해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하는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책이다.

이 책에서 찬메 사야도는 마음과 몸의 두 가지 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마음챙김(주시)하는



알아차림; being mindful) 한다면 그것의 내재적인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만일 이러한 마음-몸의 과정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어떠한 갈애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갈애가 깨져버릴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괴로움의 소멸(涅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찬메 사야도는 "마음챙김 수행의 목적은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것"이라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아차려야 한다"고 당부한다.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미안타의 마하시 선사(Mahasi Sayadaw: 1904-1982)의 직제자인 찬메 사야도는 1979년부터 세계 30여국을 순방하며 법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난 92년부터 6차례 방한해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검누비면(의복)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마	250,000
면(의복), 광복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무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마	180,000 ~ 250,000
모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마	140,000 ~ 170,000
마(의복)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하복지-구입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매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숙터이빌 중간 동부경유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5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정

- 초급반 (3개월): (매주: 목,금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장, 범고) 다루기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중급반 (3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정안시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작법반 (6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비라, 다계작법, 오공양작법, 요점비라, 삼귀의작법 (일명 비라 나비춤)
- 고급반 (6개월):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범패 의식교육원 정토사
신정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리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동훈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생명·의료·산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